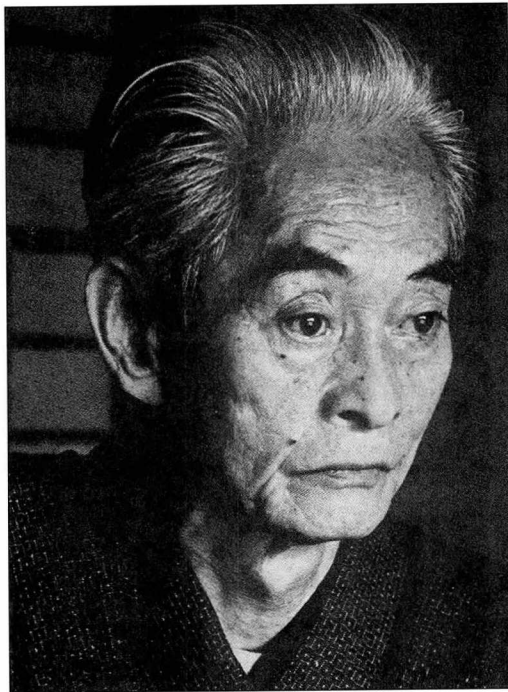


“문학은 존재의 의미를 창조해가는 것”

비감(悲感)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의 만남

김채수

고려대 교수 · 일어일문학



“나에게 죽음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었고, 이런 의식은 삶을 끊임없이 허무한 것으로 인식시켜 주었지요. 죽음이야말로 문학적 충동(衝動)의식을 불러일으킨 에너지원이었으며, 나의 삶을 미적 의식으로 충만케 했던 에너지원이었던 것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김채수 — 선생이 살아계시다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야스나리 — 1899년에 태어났죠. 헤밍웨이와 같은 합니다. 그는 1961년에 사망했는데 나는 1972년까지 살았죠. 그가 62세에 사망했는데 나는 73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뜬 지도 벌써 26년이나 됐군요.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올해 99세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꼭 100살이군요. 내년에 나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죠?

김채수 — 그렇습니다. 선생에 대한 연구자가 현재 일본 내 전문대 이상의 교수들만 500명이 넘어요. 일본 외에도 200명 이상 있습니다.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 연구회 주최로 국내외 학자들이 내년에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나온 선생에 대한 연구 논문만 3만여편이고, 단행본은 300여권에 달합니다. 매년 천여편 이상의 논문과 50여권 이상의 단행본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는 선생이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일본문학이 서구세계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서구세계에서 일본문학이 연구되기 시작했겠습니까? 현대 일본에서는 선생이 일본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져 세계문학의 한 영역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활

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야스나리 — 아, 그런가요?

김채수 — 그런데 연구자들이 선생을 연구하는 데 서물(書物)을 통해서도 이렇다 할 어떤 확실한 정답을 끌어내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좀 여쭙어볼까 합니다.

야스나리 — 세상사에서는 정답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생각이 정답이라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죽음을 의식한 삶

김채수 — 선생의 자살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72세의 고령에 꼭 자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밍웨이가 62세에 자살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보다 11살이나 많은 나이였습니다. 60세가 넘어 자살한 작가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선생의 자살원인을 알고 싶어하지 않을 수 없죠.

야스나리 — 듣고 보니 그렇군요. 사실 나는 한평생을 죽음과 함께 살아갔어요. 평생을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이용했

죠. 나의 자살은 사실 나의 그러한 삶의 방법의 한 결과였을 겁니다. 작품을 창작할 때도 죽음을 많이 이용했지요. 예컨대, 어떤 한 인물을 죽여서 새로운 단계로 사건을 전환시켜 가곤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죽음을 좀 이용했던 거죠.

어떤 인간이든지, 자살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이죠. 가장 강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죠. 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친구나 부모나 애인일 수도 있죠. 내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독자들에게 대한 나의 가장 강한 마지막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채수 — 그러면 선생의 독자들에게 대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강한 표현을 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야스나리 — 그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독자들 쪽으로 한발짝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채수 —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를 갖지 않으셨는지요?

야스나리 — 내 모든 작품에는 비감(悲感)이 깔려 있었어요. 나에게 그것은 사실 나의 아내에 대한 비정(非情)을 결심할 때 나오는 감정이었죠. 나의 아내는 내가 아이를 갖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했죠. 그런 아내가 한없이 가련했죠. 사실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런 아내에 대해 비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그럼 그토록 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느냐? 궁금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나로서는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왜냐고요? 내가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처럼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가문은 대대로 같은 가문과 혼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내가 두살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또 나도 아버지처럼 몸이 허약해 빨리 죽을까봐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야스나리’, 즉 ‘건강하게 되라(康成)’로 붙여 주었던 겁니다.

김채수 — 알았습니다. 선생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다섯 작품만

선정해 주시죠.

야스나리 — 우선 《설국(雪國)》을 들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1935년에서 1948년까지 무려 13년간에 걸쳐 다듬은 작품이죠. 다음으로 《산소리(山の音)》(1954), 《천우학(千羽鶴)》(1952),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1960), 《고도(古都)》(1961) 등일 거예요.

예술적·도덕적 가치가 높은 대표작

김채수 — 이 작품들이 선생의 대표작품이라면 그 선정기준은 무엇일까요?

야스나리 — 우선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 있어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과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일본의 전통문화와 잘 맞물려 있어 도덕적 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김채수 — 선생은 16세 때 할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작가가 될 것을 결심했잖아요? 그때 이래 죽을 때까지 50여년 동안 500~600여쪽에 달하는 책들을 40여권이 나 쓰셨어요. 35권 정도가 작품들이고 나머지 5권 정도가 평론 등이죠. 이 정도의 문학적 활동을 행하신 선생에게 문학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야스나리 — 나에게 문학이란 한마디로 내 자신도 잘 모르는 내 삶의 한 실현수단이었죠. 나에게 대부분의 문학적 활동은 작품을 쓰는 행위였는데, 그러한 작품창작의 과정에서 나는 국가·민족·자연·인간·사랑 등을 새롭게 발견해가게 되었죠. 나의 창작행위는 이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의 진면목들을 파헤쳐 그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문학은 작품의 창작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명체계를 추구해가고, 내 존재의 의미체계를 창조해가는 것이었어요.

김채수 — 그럼 문학을 그렇게 인식했던 선생의 삶이란 어떠한 것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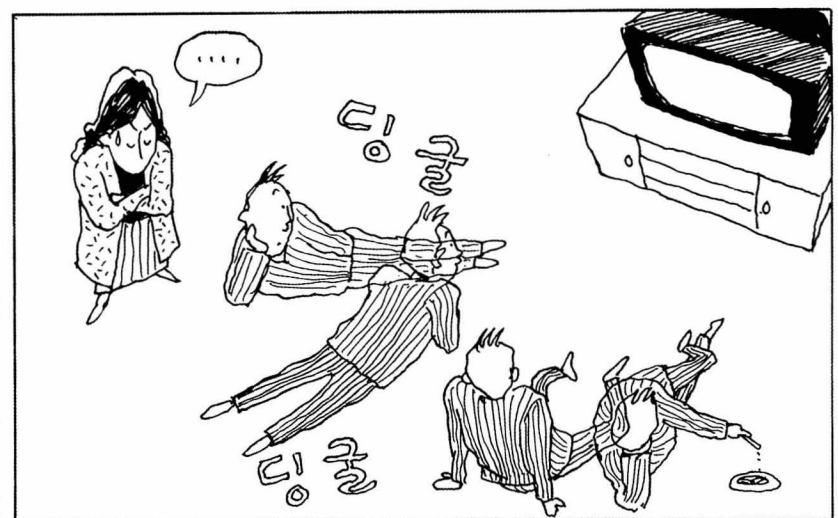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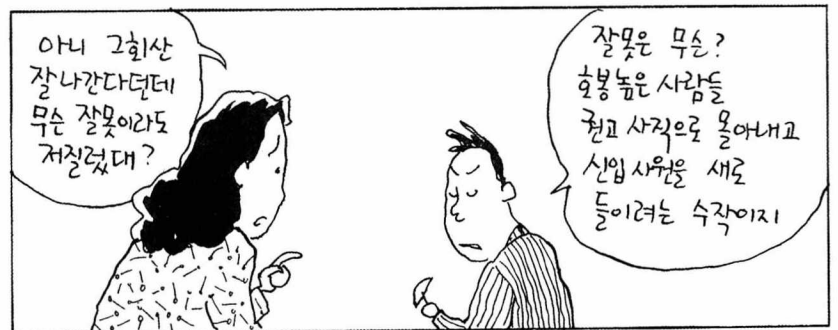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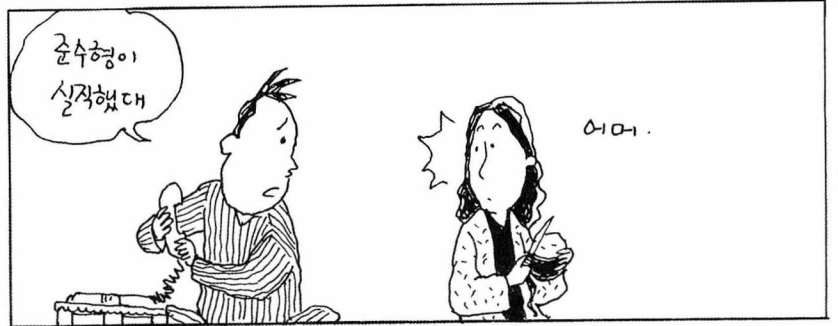
야스나리 — 한마디로 의무의 수행과정이었고 또 그러한 수행과정 속에서 존재의 의미 탐구과정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삶이란 밤바다에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그러드는 포말과도 같은 것이고, 검은 우주 속에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별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채수 — 그렇다면 삶이란 결국 허무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야스나리 — 아니죠. 허무한 것도 아니고 허무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무한

책과 이대리

박 시범.



“선생은 50여년 동안 5, 6백쪽에 달하는 책을 40권이나 쓰셨습니다. 선생에게 문학이란 자신도 모르는 삶의 한 실현수단이었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진면목을 새롭게 보게 하죠. 선생에게 창작행위는 존재의 의미체계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수 교수

에 열려 있는 무수한 과정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군요.

삶은 무한으로 열려 있는 과정

김채수 — 그렇다면 선생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이었나요?

야스나리 — 나에게 죽음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었는데, 이 의식은 나의 삶을 끊임없이 허무한 것으로 인식시켜 주었지요. 나에게 문학이 그러한 삶의 허구적의 한 극복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나에게 죽음이야말로 문학적 충동의식을 불러일으킨 에너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미적 의식들로 충만시켰던 에너지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요.

김채수 — 끝으로 선생의 문학작품의 어떠한 면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야스나리 — 나는 문학을 하기 위해 동경대 영문학과를 들어갔죠. 일학년은 다니다 성장소설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학년 때 일본문학과로 전과를 했죠. 학사논문은 일본 고전소설 연구였어요. 그후 나는 10여년간 서구의 소설이론서를 탐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설국》이었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일본 고전소설이론과 서구 소설

이론을 융합시켜서 그 이론으로 《설국》을 썼던 것이죠. 앞으로 한국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한국 고전에도 밝아야겠고 서구소설론에도 정통해야 한다는 거죠.

김채수 — 하나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보니, 작품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과의 새롭고 구체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실현시켜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소설쓰기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소설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야스나리 —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선 자신의 가족문제를 사실대로 기술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문제를 털어놓는다는 형식을 취해서 말이죠.

김채수 — 알았습니다. 선생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